

연변팀 홈장 5连胜 신바람... 6월에 2연속 홈경기

경기장은 축제 분위기, 순위는 6위로 ‘껍충’

팬들은 승리를 웨쳤고 연변팀은 결과로 말했다. 1만 5,000여명 팬들의 응원 속에서 연변팀은 파죽지세의 홈장 5连胜을 달성하면서 경기장을 온통 축제의 환호성으로 장식했다.

6월 1일 오후 3시에 연길시전민강체육중심에서 진행된 2025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 11라운드 경기에서 연변룡정커시안팀(이하 ‘연변팀’)은 소주동오팀(이하 ‘소주팀’)을 2대 1로 격파하며 질주했다.

경기전 소식공개회에서 홈장 5连胜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던 이기형 감독은 4-2-3-1 전형을 가동해 호재겸, 왕봉, 서계조, 허문광으로 수비선을 구축하고 중앙 미드필더에 리강과 박세호를 배치했으며 황진비, 리봉, 김태연이 2선에, 최전방에는 포부스가 원톱으로 나섰다. 키퍼 장갑은 구가호가 썼다.

각자 목표가 뚜렷했던 두 팀은 시작부터 탐색전 없이 치열하게 맞붙었다.

특히 초반 분위기를 가져가려는 소주팀의 공세가 날카롭게 이어지면서 연변팀 문전이 수차 혼란에 빠진 가운데 6분경 구가호가 풀대 중앙을 향해 날아온 헤딩볼을 선방으로 쳐내며 위기를 모면했다.

11분경에 소주팀이 또 한번 조직한 공격이 연변팀 문전을 휘저으며 슈팅으로 연결됐지만 풀대 윗쪽을 맞히고 튕겨나갔다. 이렇듯 상대의 강도 높은 압박이 펼쳐지면서 연변팀은 경기의 흐름을 바꿀 전환점이 시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기적절한 선제골이 터졌다. 연변팀의 전환점이었다. 중앙에서 오른쪽 측면으로 전개된 연계 플레이를 통해 허문광이 공을 받



아 문전으로 크로스를 올렸고 상대 수비수의 발에 걸리지 못한 공은 페널티 지역에 침투해있던 포부스의 발밑에 떨어졌다. 풀대 윗쪽을 향해 날린 포부스의 슈팅이 시원하게 골망을 흔들며 절호의 찬스가 절대적인 득점으로 완성되었다.

경기 15분경 연변팀은 1대 0으로 앞서가며 흐름을 장악했다.

한편 시작부터 파상공세를 펼쳤으나 되려 한골을 내준 소주팀은 경기를 원점으로 돌리려는 노력을 한층 더 가했다. 이와 함께 연변팀 문전이 흔들리는 장면이 여러번 연출되었고 구가

호가 번번이 구세주로 나섰다.

연변팀은 득점 우세를 지켜내는 한편 역습을 통해 활로를 모색했다. 이대로 전반전을 마무리하나 싶었던 44분경, 소주팀이 프리킥 기회를 얻더니 헤딩볼로 동점골을 만들어낼 줄이야...

전반전에 연변팀은 2회의 슈팅에 유효 슈팅 1회를 기록했고 상대는 9회의 슈팅과 3회의 유효 슈팅으로 우세한 경기를 펼쳤지만 경기 결과는 1대 1로 두 팀은 잠시 손잡았다.

연변팀은 허문광과 리강을 빼고 리세빈과 천창걸을 투입하며 후반전을

시작했다.

후반전에도 소주팀은 라인을 올려 우리 진영으로 밀고 들어오며 강하게 압박했다. 연변팀은 수비망을 촘촘하게 치면서 상대의 공격을 끊어냈다.

볼풀이 튀던 초반에 비해 경기가 차츰 소강상태에 접어들었고 두 팀은 중원에서 공 점유율을 높여가며 기회를 엿봤다.

분위기 반전이 필요했던 61분경, 연변팀은 박세호와 김태연을 빼고 한광민과 음바를 교체 출전시켰다.

그리고 이기형 감독의 교체술이 적

중했다. 후반에 투입된 음바와 전반전에도 선전하던 황진비가 상대 선수 호정의 자책골을 합작했던 것이다.

왼쪽 측면에서 공을 가지고 쇄도하던 황진비가 문전으로 파고들던 음바를 향해 패스를 넘겨줬고 음바를 지키던 상대 선수 호정이 공을 차단하려 들어올린 발끝이 공의 방향을 돌리며 자기 팀 키퍼도 손쓸 수 없는 구석을 향해 빨려들어갔다.

후반 62분경, 연변팀은 다시 한번 2대 1로 리드를 이어갔다. 득점이 나오며 팀 분위기도 덩달아 살아났다. 상대의 화력도 만만치 않았으나 연변팀의 수비를 뚫을 묘책은 나오지 않았고 구가호의 선방도 크게 한몫하면서 상대의 득점 기회를 한번 또 한번 무산시켰다.

그런가 하면 85분경에는 음바, 포부스, 황진비가 상대팀 문전을 휘저으며 추가골에 대한 기대를 끌어모았다. 87분경에도 음바와 황진비의 패스 연계가 또 한번 연출되었고 비록 마지막 한방이 부족했으나 음바가 전방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후반 추가 시간이 6분이나 주어져면서 연변팀은 황진비를 빼고 리금우를 출전시키며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지키려는 자와 추격하려는 자의 밀고 당기기가 주심의 결속을 알리는 휘슬과 함께 막을 내리며 연변팀은 최종 2대 1 승리로 홈장을 장식했다.

1만 5,000여명의 관중이 몰린 ‘마귀홈장’에서 축포를 쏘아올린 연변팀은 근 2주간의 휴식기를 가진 후 6월 14일에 불산남사팀과 원정에서 격돌한다.

/ 김가혜 김파 기자

감독초대석

여름 이적시장 행보? “아직 결정된 것 없다”

6월 1일 오후, 연변룡정커시안팀은 2025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 11라운드 홈장 경기에서 소주동오팀을 2대 1로 전승하고 홈장 5连胜을 달성했다.

경기후 있는 기자회견에서 연변룡정커시안팀 이기형 감독은 “홈에서 4连胜을 하면서 오늘 경기를 준비함에 있어 선수들의 부담감이 컸다. 또 경기 초반에 어려움이 조금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며 승리에 대한 희열을 드러냈다.

이어 “리그에서 홈장 5连胜을 한다는 게 생각 만큼 쉽지 않은 일인데 이걸 해낸 우리 선수들이 대단스럽고 자랑스럽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 “우리가 홈에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었던 건 선수나 감독진뿐만 아니라 구단측의 사업일군, 팬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여름철 이적시장이 곧 열리게 되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가?”라는 기자의 물음에 이기형 감독은 “그 부분은 구단과 상의중인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지금 여러모로 소통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 김파기자

커시안그룹

연변 축구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 집중

- 명명권 후원금 500 만원으로 증가
- 매번 경기서 이겼을 때 15만원 승리상금 지급
- ‘8강 확보 4강 도전’ 시즌 목표 여전

올해 갑급리그 시즌을 시작하면서 커시안그룹은 연변룡정축구구락부와 전략적 협력을 통해 ‘연변룡정 커시안’이라는 명명권으로 새 출발을 알렸다. 이번 협력은 랑축의 우수한 자원을 융합했을 뿐만 아니라 연변축구의 미래 발전을 위한 확고한 약속이자 강력한 지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커시안그룹은 시즌초 300만 원으로 약속했던 명명권 후원금을 500만원으로 증가하고 매번 경기를 이겼을 때에는 15만원의 승리상금(贏球獎)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커시안그룹 박길 회장이 서명식에서 밝힌 “고향 체육사업에 기여하고 중

국 축구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립증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연변룡정축구구락부 장문길 리사장은 “커시안그룹의 든든한 버팀목이 구단 운영 기반을 확고히 해줄뿐더러 팀의 전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커시안그룹은 연변축구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크게 조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승리상금 제도는 선수들의 사기 진작과 팀의 성적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즌 초기 4개 원정경기에서 1무 3패(1점)의 부진한 성적으로 몸살을 앓던 연변룡정커시안팀은 11경기가 종료된 현재 홈장 5连胜에 힘입어 승점 17점으로 순위가 6위까지 직진 상승했다. 장문길 리사장은 “조만간 부진으로 목표 달성에 대한 의문도 있었지만 ‘8강 확보와 4강 도전’이라는 시즌 목표를 향한 의지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면서 선수단의 노력과 팬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당부했다.

/ 종합



포토 포커스

‘마귀홈장’

1만 5,000여명 관중들은 열띤 응원을 펼쳤고 선수들은 반드시 이기고자 하는 집념과 투지로 끝까지 싸웠다. 선수들도 축구팬들도 한마음으로 ‘마귀홈장’의 자존심을 지켜냈다.

지난 1일에 펼쳐진 갑급리그 제 11라운드 경기에서 연변팀은 리그 상위권에서 활약하는 소주동오팀을 안방에 불러들여 파죽의 홈 5连胜을 질주하며 패조의 분위기를 이어갔다. 경기장은 축제 분위기를 방불케 했다.

/ 글 김가혜기자 / 사진 김파기자

월드컵 진출 희망의 불씨 살릴가? 오직 승리가 답

6월 5일 21시 45분 인도네시아팀 VS 중국팀

5일 저녁에 진행되는 2026 미국·캐나다·메히코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경기 18강전 제 9라운드 대인도네시아 관전 전역을 앞두고 중국남자축구대표팀이 지난 2일 저녁에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도착했다.

공항에서 기자의 취재를 받은 중국대표팀 감독 이반고비치는 상해에서의 소집훈련이 순조로웠고 선수들 컨디션도 아주 좋다고 말하면서 “나는 항상 낙관적이다. 인도네시아팀이든 다른 어떤 팀이든 막론하고 우리는 적

극적으로 승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일에는 자카르타에 도착한 후 첫 실의 훈련을 가졌다. 비록 원정지긴 하지만 전체 선수들은 모두 자기 자신에 집중하면서 승리를 따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표했다.

대표팀은 상해에서의 소집훈련을 마친 후 인도네시아로 향할했으며 당일 출발전 25명 대명단을 발표했다. 부상으로 소집훈련을 포기 마감한 무뢰 이외에 상해해항의 류약범도 이번 대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2026 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경기 18강전이 마지막 두 경기만 남겨놓은 가운데 목전 중국팀은 바레인팀과 똑같은 승점 6점으로 조 4위인 인도네시아팀보다 3점이 적다. 조조 4위를 획득해 월드컵 예선 추가경기에 진출하려면 중국팀은 2连胜을 쟁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와의 원정경기에서 대표팀은 반드시 승리해야만 추가경기에 출전할 희망을 마지막까지 이어갈 수 있다. 만약 인도네시아에 비켜나 패할 경우 바레인과의 마지막 홈경기는 거의 의미가

없게 된다.

한편 국가대표팀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많은 팬들의 관전 수요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월드컵 예선 중국대륙지역 특별중계사인 아이치이(爱奇艺) 스포츠는 6월 5일 21시 45분에 열리는 월드컵 예선경기 대인도네시아전을 무료로 생방송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아이치이 스포츠가 18강전 단계에 처음으로 국가대표팀의 경기를 무료로 생방송하는 것이 된다.

/ 신화사 종합

무려 5-0. 최고의 팀끼리 맞붙는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5골차가 난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PSG는 1일(북경시간) 오전 3시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025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인터말란과의 경기에서 5대 0으로 대승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UEFA에 따르면 1955년 유러피언컵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챔피언

스리그는 올해로 무려 70년을 맞는데 결승에서 5골차가 난 건 역대 최

고동안 가장 많은 골 차이는 4골이었다. 1960년 레알 마드리드가 아인라흐트 프랑크푸르트를 7-3으로 이긴 것으로 시작해 1974년 바이에른 뮌헨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4-0, 1989년 바르셀로나가 슈타우아어를 4-0, 1994년 AC 밀란이 바르셀로나를 4-0으로 이긴 것이다.

/ 외신종합